

# KIA 토종 선발 최다 이닝 김도현 “꿈만 같다”

16경기서 90.2이닝 소화 …8경기 QS·4승3패·평균자책점 3.18  
“‘현재’에 집중하며 최대한 오래 마운드 지키고 팀 승리 이끌 것”



‘꿈같은 전반기’를 보낸 김도현이 ‘이닝’을 생각하면서 편안한 후반기를 준비한다.

KIA 타이거즈 우완 김도현은 부상 악재를 만난 팀을 지탱한 큰 힘이였다. 치열한 경쟁 끝에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 김도현은 올 시즌 16경기에 나와 3.18의 평균자책점으로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다.

초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아쉽게 4승에 머물고 있지만 90.2이닝을 던지면서 KIA 토종 선발진 중 가장 많은 이닝을 책임졌다. 또 등판한 8경기에서는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했다.

타자들의 줄부상 속 불펜까지 흔들리면서 팀의 위기는 있었지만 김도현을 중심으로 선발진이 버텨준 덕분에 KIA는 전반기 막바지 순위 싸움을 전개할 수 있었다.

지난 5일 롯데전을 끝으로 전반기 등판을 마무리한 김도현은 “꿈만 같다. 내가 활약할 거라 생각 못했고 올해 목표가 100이닝이었는데 거의 다 가까이 왔다. 5회까지만 잠깐하게 막고 내려오자는 생각이었는데 퀄리티스타트도 괜찮았고, 감독·코치님께서 믿어주셔서 좋은 결과 나온 것 같다”고 전반기 소감을 밝혔다.

풀타임 선발로 첫 시즌이었던 만큼 김도현은 ‘이닝’을 우선 생각하면서 마운드에 올랐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했다.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온 전반기 마지막 두 경기가 그래서 김도현에게는 좋은 공부가 됐다.

유난히 득점 지원을 받지 못했던 김도현이었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는 타선의 화끈한 득점 지원이 있었다.

6월 28일 LG와의 원정경기에서는 1회 선취점을 내줬지만 2·3회 타자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3회초 7·1의 리드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김도현은 이 경기에서 3.1이닝 9피안타(1피홈런) 1볼넷 4탈삼진 7실점(5자책점)의 부진한 성적표를 작성했다. 팀은 우여곡절 9-8 승리를 거뒀지만 김도현은 이날 잠을 설쳤다.

그리고 7월 5일 롯데전에서 1회부터 기록된 고종욱의 홈런을 시작으로 KIA가 5회말 13-0을 만들었다.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점수 차였지만 김도현은 7회까지 버틴 뒤 마운드를 불펜에 넘겨줬

다. 김도현이 잘 버텨준 덕분에 불펜진도 분위기를 이어 남은 이닝을 무실점으로 처리하면서 경기는 13-0 승리로 끝났다.

LG전에서는 ‘5회만’ 생각하다 보니 결과가 좋지 못했다.

김도현은 “5이닝이라도 던지면 위안이 되는데 일찍 내려오면 바보가 된 느낌이다. 1경기일 수 있지만 일찍 내려오기 싫었다. 무너지는 경기에서도 이 끌어가면 좋은 투수라고 이야기를 듣는 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게 많이 아쉬웠다”며 “공격력을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하니까 이닝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컸다. 코치님들도 너무 쉽게 들어갔던 게 아쉽다고 하셨다. 분위기가 빨리빨리 할 때랑 어렵게 해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침착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5회까지 끌고 가자는 생각이 강해서 그랬던 건지 투구하는 것도, 생각도 급해졌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게 불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LG전 부진 뒤 ‘불안감’을 이야기했던 김도현은 바로 이어진 등판에서는 선발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다. 불펜 피칭에서부터 밸런스가 좋지 않았지만 1회 박찬호의 호수비에 힘을 얻은 김도현은 7이닝 3피안타 2사사구 1탈삼진 무실점의 피칭을 했다.

김도현은 “1회 주자를 내보내고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야수들의 도움으로 잘 던질 수 있었다. 5회 던지고 6·7회 불안불안했는데 (한)준수형 리드가 좋았다. ‘몸이 열린다’, ‘넓게 넓게 써라’ 이야기 많이 해줘서 준수형 밌고 던졌던 것 같다”며 “크게 이긴다고 해도 야구는 모르는 것인데 잘 꿰고 넘어가면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전반기 16경기를 통해 특히 마지막 두 경기를 통해서 선발의 역할과 숙제를 확인한 그는 후반기에는 ‘현재’에만 집중하면서 최대한 오래 마운드를 지키고 팀 승리를 이끌겠다는 각오다.

김도현은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 득점 지원에 대한 큰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나는 최소 실점으로 막아야 하고, 야수들은 최대한 공격력을 이어가야 한다. 전반기 등판은 끝났지만 마냥 쉴 수는 없다. 잘 준비해서 후반기 때 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선발 첫 풀타임 시즌을 보내고 있는 KIA 김도현이 전반기 16경기에 나와 90.2이닝을 책임지는 등 3.18의 평균자책점으로 마운드를 지키면서 순위 싸움의 발판이 됐다. <KIA 타이거즈 제공>

## 더위 기승…프로야구 9월 일요일 경기 5시로 늦춰

KBO, 폭염 대비책 발표…클리닝타임 최대 10분까지 연장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KBO가 선수들과 관客的 안전을 위해 폭염 대비책을 발표했다.

KBO는 8일 “폭염 정도에 따라 경기운영위원회와 심판진이 협의해 현재 4분인 클리닝타임을 최대 10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운영 방침을 조정했다. 또 각 구단에 공문을 통해 온열질환 발생에 대비해 선수단 구역에 충분한 냉방기기와 음료 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클리닝타임에 변화를 준 KBO는 전광판을 통해 폭염 대처 요령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의료 지원 및 안내요원을 증원하고 충분한 대처 물품도 준비하도록 각 구단에 요청했다.

전력 사용 급증으로 인한 구장 정전 등에 대한 대비에도 나섰다.

냉방기기 작동 관련 전력 사용 계획 및 임시 전력 운용 방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한 KBO는 구장 내의 관객 쉼터 설치도 요청했다.

늦더위가 계속되는 최근 추세에 맞춰 9월 경기 시간에도 변화를 줬다.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편성된 일요일 경기 개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된다. 이 기간에는 더블헤더가 편성되지 않는다.

올스타브레이크 이후 18일부터 재개되는 퓨처스 리그 경기의 연장전 승부차기도 무제한에서 최대 11회까지로 제한한다. /김여울 기자 wool@

## KIA 전상현 ‘6월 MVP’ 불발

롯데 대체 투수 감보아 선정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새 에이스 알렉 감보아(28)가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6월 월간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감보아가 기자단 투표 35표 중 30표(85.7%), 팬 투표 42만9664표 중 10만5152표(24.5%), 총점 55.09점을 받아 KIA 전상현(26.05점)을 제치고 월간 MVP가 됐다”고 발표했다.

롯데 선수가 월간 MVP를 받은 건 2023년 4월

나군안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아울러 시즌 중반 합류한 외국인 투수로는 2023년 8월 KT 월리암 쿠에바스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좌완 파이어볼러 감보아는 어깨 부상으로 낙마한 찰리 반즈의 대체 투수로 지난 5월 롯데에 입단했다.

그는 5월 27일 KBO리그 데뷔전인 삼성전에서 특유의 허리를 굽히는 투구 버릇 탓에 고전했으나 이를 고친 6월 이후 승승장구했다.

6월 첫 등판 경기인 키움과의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고 이후 선발 등판한 4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팀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는 6월 한 달간 5경기에서 5승 무패, 평균자책점 1.72를 기록했다. 월간 다승 1위, 평균자책점 1위, 투구 이닝(31.1) 2위다.

감보아는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를 받는다.

/연합뉴스



고지우



한진선

## ‘강원도의 여왕’ 방어나…탈환이나

KLPGA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10일 개막

고지우 2연패 시동…한진선·이정은 등 도전

고지우와 한진선이 ‘강원도의 여왕’ 자리를 놓고 강원도 정선에서 대결한다.

고지우와 한진선은 오는 10일부터 나흘 동안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총상금 10억원)에 출전한다. 지난해 이 대회 챔피언 고지우는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공격적인 골프로 ‘버디 폭격기’라는 별명을 얻은 고지우는 ‘공격 골프’에 대한 확신을 되찾고 올해 고공행진 중이다.

맥클 모나 용평 오픈 우승을 포함해 톱10에 8번이나 올라 상금과 대상 포인트 모두 5위를 달리고 있다. 평균타수 3위(70.13타)가 말해주듯 경기력이 절정이다.

특히 고지우는 강원도 산악 골프장에서 유난히 강하다. 지금까지 3번 우승을 모두 강원도 산악 골프장에서 따냈다. 고향은 제주도인데 ‘강원도

의 여왕’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한진선 역시 통산 2승을 강원도에서 이뤘다.

지난 2022-2023년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 2연패를 달성했다. 한진선은 3연패에 도전한 지난해에도 7위에 올랐다.

하이원 컨트리클럽만 오면 펄펄 날았다. 하이원뿐 아니라 강원도 산악 골프장에서 유독 성적이 좋다.

한진선은 올해 14개 대회에서 컷 탈락이 한 번 뿐이고 4번 톱10에 평균타수 10위(70.41타), 대상 포인트 18위, 상금랭킹 19위 등 탄탄한 경기력을 보인다.

올해 부활의 조짐이 뚜렷한 임희정은 주목할만한 우승 후보다.

임희정은 2019년에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뒀고 이듬해 타이틀 방어에도 성공했다.

고향이 강원도 태백인 임희정에게 하이원 컨트리클럽은 홈 코스나 다름없다. 고향 팬들의 뜨거운

응원은 덩어리다.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던 임희정은 이번 시즌 평균타수 7위(70.28타), 대상 포인트 9위에 오를 만큼 경기력이 살아났다.

최근 경기력이 하락세인 시즌 3승의 이예원은 시즌 4승을 겨냥해 출사표를 냈다.

롯데 오픈에서 30경기 연속 컷 통과를 마감했지만, 재정비의 기회로 삼은 박현경과 우승 없이도 대상 포인트 2위까지 올라온 유현조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롯데 오픈에서 첫 우승을 이룬 박해준은 내친김에 2주 연속 우승을 노린다.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뛰는 순천 출신의 ‘핫식스’ 이정은이 모처럼 국내 무대에 오른다.

이정은은 지난 2017년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인연이 있다.

이정은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코스인데, 경기 중 내가 준비한 것들을 활용하며 과정에 집중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믿는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마추어 최강으로 꼽히는 국가대표 오수민도 언니들과 겨룬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